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최고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겠다”

강정호, 피츠버그와 계약 한국프로야구 야수 최초로 미국프로야구(MLB)에 직행한 ‘거포’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한국 야구의 미래를 위해 빅리그에서 책임감을 안고 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지난 16일(현지시각)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계약기간 ‘4+1’년에 계약 총액 1650만 달러에 계약한 강정호는 하루만인 17일 미국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에 차려진 ‘친정팀’ 넥센 스프링캠프에 합류해 메이저리그 정복을 위한 첫 훈련을 시작했다.

“방망이는 자신 있어…수비 집중 훈련할 것
부상 없는 시즌 목표…유격수로 뛰고 싶어”

-계약한 소감은.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있도록 배려해 준 히어로즈 구단에 감사드린다. 이제 빅리그에 가서 잘해야 한다. 여기서 준비를 잘하겠다.

-계약 내용에 만족하나.

▲만족한다. 지금 만족하기보다도 앞으로 가서 잘해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한국프로야구 출신 첫 빅리그 직행 야수로서 선구자인데 (내 성적에 따라) 한국 야구의 미래가 달렸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한다.

-남은 기간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수비다. 유격수를 보려면 수비를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 방망이는 자신 있다.

-유격수는 물론 2, 3루수로도 기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팅턴 단장은 내게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 선수들 모여 있는 만큼 당연히 경쟁해서 이겨야겠다는 생각이다. 팀 사정상 어쩔 수 없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여기서부터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

-주전 유격수 머서의 반응은 들었나.

▲보도를 통해 접했다. 멋있다고 생각한다. (웃음) 재미있을 것 같다. 선수들과 함께 빨리 연습해 보고 싶고 기대도 크다. (강정호는 지난 14일 계약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면서 “꾸준히 기회를 준다면 유격수 노릇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유격수가 좋다”며 붙박이 머서를 자극했다. 머서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정호가 자신감을 품고 미국으로 오는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 “그의 자신감을 활용해 우리 모두 하나의 목표에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 팀의 한계는 오직 하늘일 것”이라고 점잖게 응수했다.)

-빠른 볼 적응 여부가 타격의 관건인데.

▲가서 얼마만큼 적응하느냐가 중요하다. 최대한 빨리 적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거기 맞춰서 선수들 대화도 많이 나눌 예정이다.

-추신수도 기술적인 부분보다 야구장 바깥에서의 적응이 생존에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는데.

▲한 번도 혼자 타지에서 생활한 적이 없지만 크게 걱정은 안 한다. 한국 분이 피츠버그에 많이 살지 않는다고 해 약간 걱정이 되지만 외로운 만큼 다른 할 것을 찾지 않겠나. 또 다른 음식도 다 잘 먹기에 음식은 크게 걱정 안 한다.

-루키로서 첫해 목표가 있다면.

▲따로 잡아둔 것은 없다.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면서 다치지 않는다면 시즌 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리라 생각한다.

-장기적인 목표가 있다면.

▲이제 시작이다. 1년을 보고 뛰는 게 아니다. 최초의 한국프로야구 출신 야수로서 내가 좀 더 잘해서 후배들에게도 빅리그 진출의 기회를 열어주고 싶다.

-피츠버그 구단이 높이 산 점은 뭔가.

▲내 자신감을 높이 샀다. 유격수로서의 장타 능력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동갑내기 투수 류현진이 계속 훈련 끝나기만을 기다리는데.

▲오늘 밥 먹기로 했는데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다.(웃음) 류현진에게 자주 메이저리그에 대해 물었고, 그쪽 투수들의 공을 ‘칠만 하냐’고 물었더니 ‘칠만 하다’는 답을 들었다. 하지만 (추)신수형 치는 것 보면 또 빅리그에서 타자로서 뛰는 것이 어려워 보이기도 하다.

-한국 팬에게 한마디 한다면.

▲한국프로야구 첫 야수로서 제게 많이 응원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그에 보답하도록 열심히 하겠다. /연합뉴스

파이리츠 유니폼을 입고 PNC 파크에서 포즈를 취한 강정호.

메이저리거 4명(서재응·김병현·최희섭·강정호) 배출한 **허세환** 인하대(전 광주일고) 감독

“강정호는 만능선수…스승으로 이보다 보람된 일 없어”

“좋은 선수들을 만난 복 많은 감독입니다. 제자들의 멋진 2015시즌을 보고 싶습니다.”

인하대 야구부 허세환 감독은 요즘 축하인사를 받느라 바쁘다. 광주일고 감독 시절 제자였던 강정호가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 유니폼을 입게 되면서 덩달아 축하 인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1994년 무등기 초대 우승을 시작으로 광주일고의 10차례 전국대회 우승과 5번의 준우승을 지휘한 허 감독은 서재응·김병현·최희섭 ‘빅리거 3인방’을 조련한 감독으로도 유명하다. 이번에 강정호까지 한국 프로야구 야수 사상 처음으로 빅리그에 직행하면서 그의 앞에 붙는 수식어는 ‘빅리거 4인방’으로 바뀌었다.

허 감독은 “광주일고 강정호는 만능선수였다. 내가 필요로 하는 포지션에서 최고로 잘해 줄 수 있는 선수, 팀 사정에 의해 어느 포지션에서도 기량을 발휘하던 선수였다. 그 선수가 있어서 전국대회 우승을 할 수 있었다. 탁월한 재능이 있었기에 빅리거가 될 수 있었다”고 제자 강정호를 평가했다.

허 감독의 평가대로 강정호는 멀티플레이어였다. 강정호는 2005년 황금사자기 결승 선발로 성남서고 타선을 8이닝 2피안타 무실점으로 묶었다. 또 ‘MVP’ 서건창(넥센)이 2번, 강정호가 4번 타자로 공격을 이끌며 21년 만의 우승기 탈환을 이뤘다. 강한 어깨를 가진 강정호는 포수로 2006년 현대로부터 2차 1라운드 지명을 받기도 했다.

허 감독은 “운동 센스가 탁월하고 욕심 많은 선수였다. 그때도 힘은 좋았다. 파워가 월등하기는 했는데 이 정도로 힘을 싣기까지는 정말 열심히 웨이트와 준비를 했을 것이다. 본인이 열심히 해서 최고의 무대에서 꿈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스승 입장으로서 이보다 보람된 일은 없다”고 웃었다.

허 감독은 얼마 전 광주일고에 인하대 전지훈련 캠프를 차렸다. 수많은 야구 스타가 탄생한 곳에서 새 시즌을 준비하게 된 허 감독은 “훌륭한 제자들을 만난 복 많은 감독”이라며 자신을 낮췄다.

허 감독은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았고 열심히들 했다. 또 광주라는 곳이 워낙 야구의 메카이고, 그런 기를 받는 광주일고 출신이라는 점도 좋은 작용을 한 것 같다. 내가 아니라 누가 감독을 했어도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좋은 선수들을 만나 행복한 감독이다”고 말했다.

그는 자랑스런 제자들의 2015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보였다.

허 감독은 “서재응·김병현·최희섭 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있을 때 이들이 나중에 KIA에서 함께 야구를 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런 기회가 왔다. 현역 막바지지만 올 시즌 정말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메이저리거의 모습을 되살리면 좋겠다”며 “(강)정호도 일단은 기술적인 면보다 타국에서의 외로움, 의사소통 문제 등과 싸워야 할 것인데 긍정적인 자세로 헤쳐나가면 좋겠다. 잘 안됐을 때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다. 꾸준히 아프지 않고 잘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평창동계올림픽 분산개최 없다” IOC 조직위 공식발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구닐라 린드베리 조정위원장이 “평창동계올림픽의 분산 개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18일 평창조직위에 따르면 린드베리 조정위원장은 지난 16일 강릉 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에서 열린 제4차 프로젝트 리뷰 본회의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IOC는 ‘어젠다 2020’을 발표하면서 올림픽 종목을 개최지 이외의 도시에서도 열릴 수 있도록 제안했으나 평창은 현재 계획한 베뉴 그대로 경기를 치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회 준비과정이 본격화되면서 중요한 우선과제들에 대해 평창조직위에서 준비를 잘 추진하고 있어 강한 신뢰감을 느끼게 됐다”며 “내년도 첫 번째 테스트 이벤트를 앞두고 올해는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조직위와 밀접한 업무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그동안 논란이 된 외국 및 국내 분산개최를 비롯해 도내 경기장 재배치 문제 등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조양호 평창조직위원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최선을 기울인 결과 신설 경기장 착공 등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조직위가 중심이 되어 대회준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평창조직위와 IOC는 비공개로 진행한 이날 본회의에서 인력관리, 거버넌스, 베뉴, 인프라, 경기운영, 테스트 이벤트, 숙박, 수송, 선수 등 10개 분야별 준비상황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눴다.

앞서 전날 첫 회의에서는 IOC 관계자들은 경기장 건설 상황 등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IOC는 경기장 건설 지연에 따른 우려보다는 대회 준비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으며, 관중 이동통로, 장애인 접근성, 경기장 관리 주체 등에 대해 질의하는 등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조직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전반적으로 그간의 의문점을 없애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이번 프로젝트 리뷰 결과를 대회 준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